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위한 기관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활성화 추진위 · 무안군의회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참여

운항 재개 이후 1달간 104편 운항…평균 탑승률 79.2%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일상)는 지난 26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공항장 정희)와 공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안공항장의 현황설명을 시작으로 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마치고 공항 출입국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그동안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월부터 2년 4개월 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됐다가 지난 7월 베트남, 태국, 몽골 등 3개국 5개 노선의 국제선 운항이 재개된 상태이다.

운항 재개 이후 8월까지 1달간 총 104편이 운항됐으며, 평균 탑승률은 79.2%로 탑승객은 총 14,775명을 기록했다.

현재 공항 측은 무안-하노이간 국제선 운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김포, 제주 노선을 주 4회까지 증편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편의시설 확충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 관리동 신축을 완료했고 주차장도 1,895면에서 3,002면으로 증설했으며 면세점 확장, 대합실 면적 조정 등 여객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활주로 길이를 2,800m에서 3,160m로 늘리는 활주로 연장사업도 8월 중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2024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 희 공항장은 "기존 노선 회복과 신규노선 유치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며"앞으로도 군의회와 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경현 의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공항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며"서남권의 관문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일상 위원장은 "해외입국자 검역조치 유지와 감염우려 등으로 여행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국제선 재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제9대 무안군의회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며 추진위원회에서도 공항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신안군, 퍼플섬 '버들마편초 꽃축제' 열려

9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혹의 보라향기속으로' 주제

신안군은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과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퍼플섬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혹의 보라향기속으로'라는 주제로 '퍼플섬 버들마편초 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버들마편초는 마편초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보라색꽃이 피며, 꽃피는 기간이 길어 퍼플섬에 안성맞춤인 식물로, 해안 산책로를 따라 퍼플섬 곳곳에 전국 최대규모의 천만여송이의 꽃이 피어있어 섬을 일주하는 관광객들에게 매혹적인 보라꽃길과 함께 초가을의 정취에 매료시키고 있다.

퍼플섬에는 계절별 보라색 꽃이 피는 대규모의 꽃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봄에는 라벤다꽃, 여름에는 버들마편초 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으며, 가을에는 아스타국화꽃이 만여평의 단지에서 '아~스타!'보라색 향연을 기다리고 있다.

신안=이덕주 기자

'영암배' 코로나 뚫고 해외시장 수출 본격 시동

3백만불…1천톤 수출 달성 목표로 내수시장 안정화 기여

영암군은 지난 26일 신북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영암배' 대만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2016년 인도네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꾸준히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영암배는 지난 8월 12일 대만 44톤 수출에 이어 81톤의 신고배를 26일 선적하였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올해 3백만불, 1천톤 수출을 목표로 순항중이라고 밝혔다.

영암배는 신북농협 배공선출하회를 중심으로 개화부터 수확까지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기술 컨설팅을 통한 품질의 규격화와 검역 요건 준수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하여 해외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어 영암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 앞장

'강소농 e-비지니스 소득창출 교육' 프로그램 성료

함평군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구축과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운영한 '강소농 자율모임체'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함평군은 29일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15회에 걸쳐 '2022년 함평강소농 e-비지니스 소득창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소농'이란 경영체 내에서 개선사항을 발굴해 농업소득향상을 이끌어내는 등 농업경영관리 역량을 갖춘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뜻한다.

군은 '내 농산물을 내가 디자인한다'는 슬로건 하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직거래를 위한 온라인 상품 판매와

홍보기법으로 소득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의는 시우디자인학교 노시우 대표가 맡았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광군, 제22회 불갑산상사화축제 준비 박차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소됐던 제22회 불갑산상사화축제가 3년 만에 개최 예정인 가운데 지난 24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22회 불갑산상사화축제 행정지원계획 시달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축제 서막을 알렸다.

이번 회의는 부군수, 각 실과소 서무팀장, 부읍·면장, 상사화축제 추진위원회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일자별 주요행사 세부계획 설명, 축제 준비에 따른 각 부서별 행정지원계획 및 협조사항 전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22회를 맞는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상사화 붉은물결, 청춘의 사랑을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불갑사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걷는 상사화 꽃길걷기 및 기념식을 통해 본격적인 축제의 개막을 알리고, 박진도·노라조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어서 축제 기간 동안 상사화 가을음악회·지역가수 페스티벌 등 공연행사, 상사화 꽃맵시 선발대회·군민 가요제·다솜 상사화 가요제·전국대학가요제 등의 경연행사, 상사화 소원등·상사화 SNS 사진인화·상사화 결혼식·강항의 날 선포식 등 각종 문화 행사, 전시·체험행사 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상사화 달빛야(夜)행, 상사화 미디어파사드, 포토존 등 야간 콘텐츠도 도입하여 축제장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한다.

영광=서희권 기자